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과 인민들의 남한 귀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 경제현실이 심상치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평화와 화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남북화합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불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이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늘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 반드시 해탈분을 여는 것이 되리라. 〈보요경〉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다해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 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 세계의 실상을 삼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는 다 다툼이 없느니라. 〈승사유법천소문경〉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인내는 자타의 평화를 낳는다. 자신이 노여움의 과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함이요 이미 분해하고 원망하지만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않는 것이 될것이니, 이는 바로 남을 평화롭게 함이다. 〈섭대승론〉

적과 싸워서 무기로 해치면 동조욱에 떨어진다. 〈대취문회경〉

논쟁 하는 일에는 과실이 많이 따르지만, 논쟁하지 않는 일에는 공덕이 구비돼 있다. 만약 불도를 닦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인욕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대보적경〉

보살은 세세에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는 가시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언덕 따위는 다 저절로 제거된다. 〈보살행오십연신경〉

관련기사 2 · 3면

해외전법사 한자리에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국제포교 30년 기념법회'

20개국 300여스님 '한국불교 세계화' 제2도약 모색

해외포교에 전념하는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해외포교를 전망하는 '국제포교 30주년 기념법회'가 개최된다.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교사 30주년 기념법회'는 지난 66년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이 해외포교를 시작한 이래 전세계 20개국에 160여곳에 개설한 선원장을 비롯 해외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 등 3백여명의 국제포교사들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해외포교를 전망하고 사례보고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포교원이 지난해부터 국제포교사 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해외포교 30년을 회고하고 향후 국제포교를 전망하는 각종 세미나 및 사례보고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무원도 이번 법회가 해외포교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감안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화계사 부주지 성광스님은 "전세계 선센터 선원장과 해외사찰에서 포교하고 있는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포교방안을 모색키 위해 법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국제포교는 66년 숭산스님이 일본 도쿄에 흥법원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해외사찰은 130여곳. 숭산스님은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국가는 물론 남아공화국 브라질 전세계 20여국에 160여곳의 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선원도 미국의 뉴욕과 오하이오, 아르헨티나 등 8곳에 지부를 설치해 현지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국내 최초 '황금사원' 왕실의 원찰이었던 서울 갑현동 수국사(주지 자용)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법당을 황금으로 도금한 '황금사원'을 건립하고 있다.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황금법당은 외9포, 내15포, 1백8평 규모로 겉면은 물론 마룻바닥 기둥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기와를 제외하고는 온통 순금으로 도금하는 불사가 진행중이다. 약 60억원의 예산으로 순도 99.9% 의 금을 사용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불교TV가 케이블TV 최초로 독도에 위성케이블 수신시스템을 설치. 오는 3월부터 독도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시청할 수 있게됐다.

불교TV '우리땅' 독도에 위성 수신시스템 설치

절해고도 독도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케이블TV를 통해 접할수 있게 된다.

최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에 케이블업계 최초로 불교TV가 위성수신 시스템을 오는 3월1일 무상으로 설치, 불교TV를 비롯 16개 케이블채널시청이 가능하게 된 것.

이번 불교TV의 독도 위성수신 시스템 설치작업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독도 사랑하기 운동과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독도지키기'에 한 몫을 다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기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불교TV 사장 태응스님은 "독도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게 된다는 것은 독도를 단순히 우리국토의 경계로서가 아닌 우리문화가 살아 숨쉬는 땅으로 공유하기 위한 첫 시도로 기억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개혁 대책위 결성

'성직자양성 대학원 부당' 위헌신청 방침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종교교육개혁방안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에대해 교계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6일 종무회의에서 '성직자양성대학원의 입법자체가 부당하다'며 부당성과 무효화를 목적으로하는 (가칭)불교대책위원회를 이달말에 결성키로 했다.

불교대책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종단 고교 전문인사들로 구성하고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위헌적요소를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소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전국승가대학인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2차 교육개혁안은 선교정치의 일환"이라며 "교육관계법 전문대학원조항에 국내종교의 성직자를 포괄하도록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종교관향적 교육관계법을 시정하고 종교차별적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범종교적 국가적 관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전문대학원으로 개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화합 도와주길" 당부

김대통령 교계 지도자 13명 초청 오찬

송월주(조계종) 최혜초(태고종) 전운덕(천태종) 김락혜(진각종) 이홍과(관음종)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불교계 지도자 13명은 지난 21일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의 불교계 현안과 시국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3면〉

불교계가 '1.21 김대통령 국방부 종앙교회예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오찬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편애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교에 많은 지원을 했다"며 "종교갈등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불교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지혜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종무행정을 펴나가라고 배석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조계종은 청와대 방문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국방부예배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비서실장의 사과가 있었다"고 공식발표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오룩원(동국학원 이사장) 전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스님이 초청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방지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스님과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참석했다.

동국대 학위 수여식

학사 3천165명 배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3일 교내 중강당에서 9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48명 석사2백44명과 1천7백42명의 학사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송석구 총장은 식사를 통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졸업생의 장도에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며 "경양과 화해를 몸소실천하여 밝아오는 태평양시대 새벽을 밝히는 거인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주캠퍼스도 지난 26일 교내 문무관에서 석사 6명등 1천4백23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65년 농림대학 재학중 한일비준 반대데모에 참가했다 희생된 고 김중배씨에게 명예농학사 학위가 수여됐다.

설날 연휴로 금주 12면 발행

3 · 1절 77주년 특집 10면
'청와대 오찬' 안팎 3면
"입학선물은 불서로"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등에 사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진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해 왔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현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사 설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3·1정신과 독도 망언

역사란 민족의 기억의 공유를 통한 대내적 결속의 도모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 위기의식이 커갈 때 증폭된다. 한말에 일어난 역사적 관심이 그렇고 신채호의 역사발견이 또한 그렇다. 신채호는 역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힘있게 정의했다.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이다" 일본이 또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참으로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잊을만하면 교과서문제와 역사호도 발언으로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더니 이윽고 합법적인 영토 병합의 노골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온건하고 냉철한 인사들도 분노와 열패감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적 응어리는 아니할 말로 일본열도를 한번이라도 병합해야 풀릴 것이다. 하무라비 법전의 진리는 영원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평화적 공존의 시기인 바,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냉철한 현실관단이 중요하다. 일본은 지금 영토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대외적 적대감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책략을 쓰고 있다. 일찌기 도요토미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그 충일한 군사력을 대외침략을 통해 소모시키려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일본은 할 수 있다면 평화법을 고쳐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려고 나설지도 모른다. 자국의 역량과 대외적 여건이 성숙할 때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세계를 향해 군국주의를 재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진정 이 점을 우려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때도 그렇게 당했었다. 식민의 압제에 신음하던 1919년 3월1일, 우리는 자주와 독립을 외치는 거국적 궐기를 했었다. 결과는 무력 진압이었고 유관순 누나와 태극기가 짓밟히고 붉은 피가 이땅의 산하에 뿌려졌다. 그때 불교는 무엇을 했던가. 거두절미하고 한용운이 우뚝 우리의 기억에 박혀 있다. 33인 가운데 대부분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거의 굴복했지만 그는 총독부가 보기 싫다고 집까지 북향으로 했을 만큼 철저한 지조를 보였다.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불교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초세간적이다. 일상의 모든 현실을 환상이요 마야로 보는 자세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입각한 대중적인 행동 방향을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불교계의 지도자들도 제각기의 개성이 두드러질 뿐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한용운을 생각한다. 그의 위대성은 님에 대한 사랑, 불교적 인식의 깊이를 세속에 대한 처절한 인식 위에 구축한 점에 있다. 그의 시는 눈물로 씌어졌다. 오도의 환희나 일상적 절대의 무애행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에 대한 분노와 회한 그러면서도 끝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에 감전되지 않을 수 없다. 설총이 원효에게 도를 묻자 원효는 '선을 행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설총이 '그러면 악을 행하리까' 하자 원효는 '선을 행하지 말라 했거늘 황차 악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고 전한다. 불교의 최대의 병폐는 초세간적 가치에만 오로지 매달린데서 오는 무기(無記)와 혼침(昏沈)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삶의 질을 생각하며, 정치의 현실과 이상을 따지는 세속적 선(善)의 추구에 불교계 역시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는 말이다.

열 린 마 당

대북 포교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 잇단 월남귀순 현상등 북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통일조국의 그날이 멀지않다는 관측이 일고있는 싯점에서 불교계는 대북포교에 빈손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범종단 차원 행정적 대책 필요한 때

원 혜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요즘 들어 탈북 망명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붕괴 조짐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북한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공산권 선교활동과 북한 선교 방안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종단적 차원의 포교방안이나 행정상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불교 신행방식과 종단의 통합·정비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논리적 근거의 일부분으로 치부되어온 불교사상에 대한 교정이 종단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사상과 제도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게 왜 포교가 필요한가?' '그들은 왜 불교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점 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선교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선교사가 물의를 일으키고 추방된 사례도 있다. 이는 현지사정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교활동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그들의 입장에서 포교정책을 입안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포교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北사찰 활용 포교활성 방안 세워야

김 명 철 〈남순지장회 회장〉

현재 북한은 원칙적으로 볼때 종교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당국자들은 주민들에게 해방 후 현재까지 배타적인 종교의식과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주입 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을 놓고 볼때 곧 머지않아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에따른 혼란을 막을 길은 이들에게 하루 빨리 정신적인 지주를 심어줌으로써 북한의 전체주민 모두가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전통종교인 불교계의 포교는 타 종교보다 몇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 북한에 많은 사찰들이 있으며, 또한 현재도 북한에서는 민족문화 보호차원에서 많은 절들을 복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북한선교를 위하여 북한 현지에서 성경책을 출판하여 북한의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불교의 발걸음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우리 불교도 이제는 북한의 많은 사찰들을 잘 이용하여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대북포교책 연구·인재양성등 절실

이 지 범 〈평불협 총무부장〉

우리의 분단상황은 1945년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지역간의 이념대립에 의한 정치체제의 갈등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체제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민족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다.

분단 2세대의 통일 무관심증으로 시간소요에 따른 향후 남북한 통일은 점점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의 재방지, 인도적인 배려, 공존공영의 임무, 단일민족의 공동확인, 세계사의 민족역량 과시, 세계인류 발전에 기여 등과 같은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 북한불교의 부문을 통해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려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인 국가전략 개념의 포교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는 북한과 북한불교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연구와 인재양성, 단체연대를 이뤄야 한다. 둘째는 북한 포교의 첨병조정과 신뢰구축이다. 셋째로는 현재 박물관 기능의 북한불교를 이념공백기의 북한사회에 중심사상이 되도록 한글세대화 불교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대북 포교현황

조계종등 종단차원 남북불교회의 추진

직접포교보다 불서·불구지원등 우선돼야

군승단 '마음의 등불' 주3회 대북방송

최근 탈북 귀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포교 및 귀순자포교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북포교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추진위원회를 비롯 몇몇종단과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등이 간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마련에는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귀순자들과 북한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이 가운데 불교계는 평불협 미주본부 한인회와 미주불교협의회가 매년 8·15 광복절을 비롯 비정기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에 불교서적과 불교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법타스님은 89년 방북 이후 찬불가를 보급하는 한편 북한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대북포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타스님은 또 92년 석문의범과 홍가사를 비롯 북한내 전통사찰복원과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지난해 12월25일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협회 등을 비롯 각 종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불련 창립 50주년기념모임에서 최초로 전국 각 사찰에 주지를 임명, 사찰운영과 신도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남북불교교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치란 평가도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제스처란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군승단은 지난 1월 1일부터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대북포교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를 비롯 개신교, 천주교가 참여하는 대북방송은 '마음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매주 금, 토, 일 중 15분씩 방송하며 불교는 포교활동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방송하고 있어 대북포교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북포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 등 불교행사 공동개최와 문화, 학술교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벽은 결코 높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대북포교는 몇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특성으로 인한 상호교류의 한계를 비롯 북한 주민은 종교와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직접적인 포교보다는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서적, 카메라, 시계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해 괴리감이 없도록 하는 간접적인 포교와 전문포교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김중근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파이팅 코리아!!

목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세 이상의 남녀 1천5백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직업인들에 대한 윤리수준 평가'를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구요. '신부가 가장 정직하고 국회의원은 꼴찌'라는 제목을 읽는 순간 그럼 스님들은? 하는 궁금증과 함께 행여 순위가 뒤로 쳐져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스님은 신부(62.6%), 교수(48.1%) 다음으로 3위(44.9%)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불자로서 자랑스러웠을텐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어느 여성독자가 보내온 이 편지를 읽다보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의 승보 의식을 공감할 수 있다.

승보란 무엇인가. 경전에서는 승보를 교단(僧)이라고 하면서 세 종류로 분류했다. 첫째는 제불보살들의 신성한 교단 제일의승이고, 둘째는 성문들의 교단이다. 세번째 승보는 비구·비구니교단인 福田僧이다. 복전승은 사막의 단비처럼 대중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편안과 즐거움을 준다. 또 복전승은 청정하여 중생의 탐진치와 어둠을 없앤다. 마치 보름달처럼 온갖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며, 중생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마니보주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복전승이 비록 해탈을 얻지 못했어도 이를 공양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는다고 경전은 승보귀의의 의미도 아울러 일러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스님들은 국민들의 직업별 윤리수준 평가 20등급 중 3위에 자족치 말고 '나는 과연 여법한 복전승인가' 되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가자들은 승보에 대한 귀의심을 점검해보자. 그래야만 한국불교는 민족종교의 위치를 되찾게 되고, 불자들은 어떤 평가 앞에서도 마음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부끄러움을 알자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참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만약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이 행한다면 그는 온갖 악을 저지르지 않음이 없어 받지 않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마치 때 씻은 더러운 물은 깨끗하게 사용될 수 없듯이.

〈숙윤경〉

협찬 (사)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현 성

대한불교 해동종 창종 선포문

본 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원효대사를 종조로 선교율을 수지선양하며 견성성불·전법도생함을 종지로 본종의 소의경전은 화엄경으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의 모체로써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으로 도생의 문을 열어서 교화의 임무를 다하는 종단을 창종 선포한다.

1996년 2월 일

창종대표

석봉, 인현, 경호

위 원

성타, 순주, 송산, 법봉, 대원, 법성, 대경, 종영, 상근, 송담, 대근, 창호, 선기, 영호, 인원, 원표, 형래, 선명, 경신, 영복, 상채, 순한, 우매, 무상, 학규, 해상, 용우, 기동, 제형, 덕균, 종우, 한웅, 성겸, 경희, 현효, 상욱, 기철, 원술, 상규, 상현, 광현, 대규, 영숙, 경자, 경숙, 숙희 —무순—

주소 : 경기도 용인군 수자면 성복리 393-1 / 전화 (0331) 281-0606, 262-1577 / 팩스 (0331) 262-1577

佛心달래기 초청…"교계 앙금 여전"

불교계지도자 청와대오찬 안팎

1·21 김대통령 군교회 예배사건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마련된 불교계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 대해 청와대측은 김대통령의 외국순방에 앞선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차원에서 마련된 것일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사건직후 이양호 국방부장관, 김윤환 신한국당 대표 등의 사과표명에도 불교계가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등 강경분위기가 지속되자 총선에 앞서 '불심(佛心)달래기' 일환으로 청와대오찬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지난 14일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대통령 예배사건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 이루어져, 조계종과 청와대간에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오찬에 앞서 불교계지도자들과 김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덕담. 김대통령은 "태국 인도등 불교국가 순방에 앞서 국내 불교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했다"고 인사. 월주스님이 "인도는 불교발상지이므로 불교성지 몇군데를 들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자 김대통령이 "지방이라 곤란하다"고 답변.

○…이어 마련된 오찬자리에서 김대통령은 "22일 열리는 범종교 월드컵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 준비 상황' '태고종 총무원장의 취임' '천태종이 서울에 건립중인 관문사 진척상황' '한 일 불교교류현황' '승가대 이전' 등을 묻는등 불교계현황에 비교적 세심한 관심을 표명.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이 "불교계가 김대통령을 대통령후보때부터 지원해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정서적으로 소원해지고 지지세력도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대통령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불교계를 껴안고 크게 베풀어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언론에는 김대통령이 기독교에 편향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적어도 다른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김대통령은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편애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교계를 위해 더 지원했다고 본다. 국가이익을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

○…월주스님은 다시 "대통령이 인사 행정 때 특정종교에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왔다"고 예를 들자 김대통령은 "됐어, 그건 됐어"라며 국방부예배에 대한 답변을 막았다고 참석자들이 전언.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된 청와대 오찬을 마치고 김광일 비서실장은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김대통령 군교회 예배사건과 관련, 의전과 경호상 잘못이 있었다며 사과를 표명.

○…청와대측은 오찬 칼국수에 멸치국물 대신 다시마 국물을 쓰는 등 스님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

○…한편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았던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불교 편향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시정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없이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종교편향정책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스님)는 청와대 오찬에 대해 "김대통령과 현정부의 시간벌기 및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발갈이에 불과하다. 빠른시일내에 김대통령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의 승·재가 단체들도 청와대 오찬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없자 강력 규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준엽 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21 군교회예배사건 발생 한달만에 불교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기독교인이지만 종교편애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 "의전·경호상 잘못 있었다" 비공식 사과

시 론

북한을 바라보는 '눈'

최근 북한심장부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사건,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씨 일행의 모스크바 잠적후 망명요청 등 잇따른 탈북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14일 평양에서의 망명기도 총격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통제사회에서 체제의 나사가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우리에게 대북문제에 있어 새로운 대응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체제붕괴 조짐인가

이번 사건은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사태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김일성 사후 신격화된 카리스마가 사라짐으로써 북한을 지탱하는 중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귀순자 김형덕씨의 밀입북기도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씨는 현재 구속상태에 있어 정확한 탈출동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 사회 적응에 실패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밀입북을 시도했다면 그 책임의 반은 우리쪽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 광 식
〈KBS 해설위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귀순자의 68%가 정신과 심리적인 면에서, 또 9%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북한에서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북한보다 나은 생활에 만족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귀순탈북자 관리와 사후대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순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대책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귀순해온 56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일정한 직업없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탈북자문제를 다룸에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체제가 미비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사회적 응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련의 흐름속에서 북한체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내에 북한정권 또는 체제상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이나 노선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밑으로부터의 저항세력이 조직화될 조짐도 아직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장기간의 내핍생활로 궁핍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셋째 북한은 대남 긴장상태 조성을 통해 대내적 위기상황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함으로써 내부결속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고위층 또는 특수계층의 탈북현상이 북한체제 붕괴의 직접적 징후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탈북자 증가등 일련의 체제균열조짐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우리 나름의 장단기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북한체제에 구멍이 나고, 혼란과 탈북사태가 확산될 경우 이는 곧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로서는 탈북사태를 막기위해 내부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험적인 도발을 자행할 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단계별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귀순자 생활안정 도와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북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각지에서 1천2백여명이 귀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한국정착에 협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송환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귀순자들은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믿고 생명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않는 북한동포보다 우리 능력이 미칠 수 있는 귀순자들의 생활보호에 국민적 관심, 특히 종교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자 TV'서 일반시청자 확보단계

3월 1일 개국 1돌 맞는 불교TV

山寺 법문·신행 현장등 '안방전달' 큰 몫
재정안정·프로 개발·불자 지속관심 필요

2천만 불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영상포교의 새 장을 선언했던 불교TV가 3월 1일로 개국 1주년을 맞는다.

개국이후 지난 1년간 불교TV는 초기 케이블TV 가입자 저조, 케이블 전송망 설치부진, 케이블 컨버터공급물량부족등 케이블TV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세계 최초의 불교영상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지탱해 왔다.

불교TV의 개국으로 우리 불자들은 안방에 앉아 산사의 큰스님 법문을 보고들을 수 있게 됐다. 첨단영상시대 도래에 맞춰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생방송으로 알리는 '자비의 천수천안'과 신심과 교리를 겨루는 '퀴즈 이뤄꼬' 등은 모범적인 신행과 포교의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3월 개편에서는 숨은 재주를 가진 불자들을 찾아가는 '현장소! 스타를 찾아라'와 교계 주요관심사를 진단하는 시사프로그램 'TV대중공사'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신설, 일반시청자까지도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했다. 즉 '불자만이 보는 TV'에서 '불자들이 적극 참여하며' 나아가 일반시청자들의 채널도 고정시키는 프로를 대폭 신설한 것.

그러나 지난 1년간 재정난에 시달려온 불교TV는 여전히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선결과제로 두고 있다. 불교TV는 지난해 3차례의 주식공모를 통해 재정문제를 타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재정확보의 최대 관건중의 하나인 광고수입에서 아직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구책 마련을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고 각 사찰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등 수익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확보문제와 더불어 불교TV가 해결해야 될 또하나의 문제는 시청률 확보. 최근 지역방송(SO)개국, 케이블TV 설치비용 감소 등으로 가입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불교계는 많은 신도수에 비해 케이블TV 가입 가능인구가 실제로는 적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불교TV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이의 타개책으로 "불교단체·지역사찰 등과의 연계확대를 통한 불자공동체구축으로 시청자를 끌어 모으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교TV가 공중파의 종일방송과 위성방송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방송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교채널의 특성을 살린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정시청자를 확보하여 전문방송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야만 한다. 불자들의 성금과 불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화를 뒷받침할 고품격의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이 향후 과제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품질과 맞물려 있는 경영란 타개야말로 돌맞이 불교TV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TV가 손익분기점으로 보고있는 오는 97년까지 정상궤도에의 진입여부는 고정 시청자 확보를 통한 매체경쟁력 향상과 불자들의 애정어린 시선에 달려있다는 중론이다.

이은자 기자

생활 속의 불교 ⑬

가지는 둥치에서, 둥치는 뿌리에서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이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도다."

법구경(法句經)의 말씀이다. 팔리어 경전의 다른 번역은 이렇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주체는 분명 자기 자신이다. 부처가 내 옆에 있고 선지식이 내 손을 잡아준다 해도 깨달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맛을 보고 맛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그러나 자신이 주체라 할지라도 어째서 자신만이 의지처인가? 부처나 선지식이 의지처가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왜 부처님께서는 미거한 중생들에게 부처를 의지처로 삼아라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을까?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지금까지 줄곧 부처와 함께 있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지금도 부처와 함께 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앞으로도 줄곧 부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부처와 한마음이다. 고로 나를 의지처로 삼는다 함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을 부처—내 속의 부처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뜻이다.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본래로 부처인데 그 부처를 안 믿고 따로 누굴 믿으며, 따로 누굴 의지처로 삼을 것인가. 법구경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의지처인 자기 자신이란 육신의 껍질로 포장된 아상·아만의 자기가 아닌, 바로 부처와 한마음인 내 속의 부처—주인공인 것이다.



나무의 잎새는 가지에 의지하고, 가지는 둥치에서 나오고, 둥치는 뿌리에 의지하고 있다.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모든 능력은 토양 속에 깊숙이 뻗쳐 있는 뿌리로 부터 나온다. 나무는 뿌리를 자기의 의지처로 삼고 있다. 나무의 뿌리야말로 모든 능력을 배출해 주는 원천이자 주인인 것이다. 고로 나무가 제 뿌리를 의지처로 삼지 않고 다른 나무의 뿌리를 의지처로 삼는다면 그 나무는 이미 나무이기를 포기한 것이 된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나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이며, 본래부터 보리의 존재인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그 점을 깨달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보리를 얻으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리의 존재임을 아시고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니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갈파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정각, 보리는 얻는 게 아니다. 어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얻기 이전엔 없었던 것이 된다.

또 새삼스레 얻은 것이니 잃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지금껏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며 앞으로도 부처'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본래부터 부처'가 아닌 게 없다. 고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나무가 제 뿌리를 의지처로 삼듯이 내 속의 부처—주인공을 의지처로 삼는 게 바른 수행이며 나 자신이 일체제불과 한마음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행이라고.

협찬 : 한 용 수

법회 안내

백화도량(02)929-0929
담선법회 매주 수 저후7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대불련 총동문회(02)723-9811
구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월례법회 매월 넷째 월 오후7시
용맹정진(단식기도) 넷째 토요일

금선사(02)885-4165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인등기도 매월 13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심우회법회 셋째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미타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법회 첫째 토 오후8시

천명사(062)234-6203
정기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예천포교원(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보현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하인사 원당암(0599)32-7308
용맹정진법회 1·3주 토 오후5시
아미타불 천일기도 매일 아침3시

성불사(032)541-580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 15일(음)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오전11시
중·고등학생법회 일 오전11시
성심회(거사회) 첫째 토 오후7시

관음포교원(051)517-8482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주부경전교실 매주 금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신중기도법회 1~3일(음) 오전10시

월경사(0591)53-6411
어린이 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월 셋째 토 오후8시
합창단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금어암(051)555-0072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실상사(0671)34-30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친필서예 백여점 기증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은 최근 오유지족(悟唯知足)이라는 친필 붓글씨 백여장을 불교신행연구원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회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지난 9일 법종사 주지 동훈, 화계사부주지 성광스님, 강북구청장 장정식씨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신년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 열어



영담스님(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오는 3월 2일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내달 4일 경로잔치



종실스님(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오는 3월4일 법동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연다.

무애문화재단 장학금 수여



서돈각씨(무애재단 이사장)는 지난 24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중·고·대학생 15명과 법학교수회 남부교직원 자율연구협의회 등 2개단체에 장학금과 연구비를 전달 했다.

법사회 예산 심의 총회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학장, 법사회 이사장)는 지난 25일 법사회 총회를 갖고 동회의 95년 결산 및 예산을 심의했다.

東南亞불교국 순례후 귀국

자명스님(구룡사·시인)은 미얀마 마하시 메디테이션센터에서 3개월간의 수행을 비롯해 인도 스리랑카 태국등 7개월간의 불교국순례를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

복지관서 주부교양 강좌

김병조씨(개그맨)는 3월5일 송광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주부교양강좌에 강사로 나선다.

명예경영학박사 받아

백욱기씨(동국무역회장·전 대구광역시 신도회장)는 지난 22일 계명대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탐미문학' 복간호 펴내



하유상씨(극작가겸 소설가)가 지난 77년 창간했던 잡지 〈탐미문학〉 복간호를 냈다.

20년만에 복간된 〈탐미문학〉에는 '보들레르의 탐미시 20편' '김동리의 소설세계' 등의 특집이 실려있다.

종단협 총무과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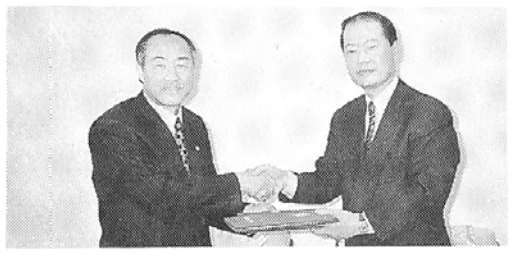
이남재씨(전 조계종 총무원 홍보계장)는 지난 14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총무과장에 임명됐다.



범종교 월드컵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

범종교 월드컵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가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각 종교인 및 스포츠단당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대회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대회사, 대통령 메시지 낭독(김영수 문체부 장관 대독), 각 종교의 기원문 낭독, 삼소회의 월드컵유치기원 합창, 종교인 실천사항 채택,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미시간주립대와 상호교류협정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2일 미시간주립대(총장 피터 맥퍼슨)와 상호교류협정식을 갖고 △문헌·정보교환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교류협정식에서는 양대학에 공식교류기관을 두기로 하고 미시간주립대측 책 윌리엄스박사(아시아연구센터 소장)와 동국대 임기중교수(학술교류처장)를 각 대학대표로 임명했다.



불교영화 '카루나' 전국시사회 성황

내달 9일 개봉 … 책방 여시아문·주요사찰서 할인 예매

불교의 자비사상과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접목시킨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묵)가 오는 9일 개봉을 앞두고 전국순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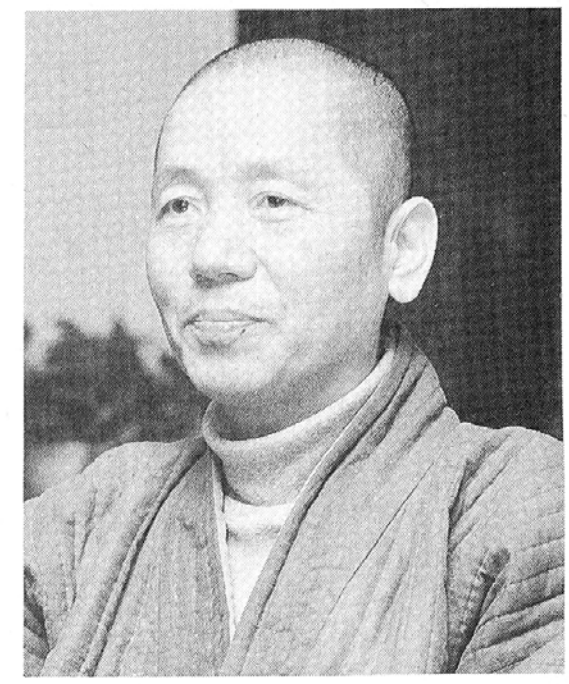
지난 16일 대구 아세아 극장서 열린 시사회에는 대구광역시 사원연합회 회장 원명스님, 대구불교방송추진위원장 설조스님등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이날 시사회에 이어 설봉스님은 5년전 도예전시를 통해 모금한 2천8백여만원을 불교대구 방송설립기금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영화 카루나는 오는 3월 9일 전국 17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되며 현재 책방여시아문, 녹수청산을 비롯 전국사찰에서 할인예매중이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LA미주불교방송의 주관으로 LA한국일보문화회관에서 서울과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카루나 전국 예매처

〈서울〉 도선사993-3161, 조계사732-2115 영화사444-4321 진관사359-8410 구룡사556-5740 봉은사545-1133 태고종총무원745-2030 현대불교신문사722-4162 책방여시아문737-0695 찻집녹수청산736-3782 견지불교사739-3032 관음손720-1147 보련각733-0333 불일서점733-5388
〈부산〉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867-0501 범어사508-4424 삼광사608-7111 내원정사242-0691 한마음선원403-7077 관음사802-6236 연화사555-5337 옥천사414-5387 삼우정사518-6150 대자선원516-6001 정암선원338-3730 효심사304-4422 무애정사556-9560 황룡암292-7733 동광동희로화랑255-6544 동광동산마루245-3421 금어암555-6072
〈경기〉 한마음선원72-3100



법련사 주지 현호스님
영산대법전 대작불사 마무리

"문화 꽃필때 사회 곳곳 안정"

한국얼 찾는 불교문화공간 활성
고승유묵전·불일강좌 3월6일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그동안 너무 서구물질문명에 심취해 살아 제 고유의 것을 잊어왔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지럽고 경제가 불안한 것도 근원을 캐면 문화를 도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꽃이 활짝 피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사간동 문화거리 조성' 움직임에 대해 적극 찬동을 표시하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현호스님. 스님은 법련사 영산대법전 건축불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시설과 문화 공간을 갖춘 포교도량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사간동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련사 영산대법전은 경복궁과 마주하고 현대갤러리, 프랑스문화원, 국제화랑 등과 세종문화회관, 전통공예관, 민속박물관, 출판문화회관 등 유수 미술관들을 근처에 두고 있다. 사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이 문화인들의 요구대로 이전하고 미술센터가 들어서면 사간동은 인사동 화랑거리와 가회동의 한옥, 창덕궁 종묘 등의 고궁을 잇는 서울지역의 대표적 문화중심가가 될 전망. 따라서 현호스님은 "6백년 도읍지인 서울에서 유일하게 옛 정취가 남아있는 사간동의 중심에 위치한 법련사 영산대법전이 한국적인 얼을 되찾는 문화창출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하도록 문화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다.

지난 1월 영산대법전 완공과 더불어 개관한 불일미술관은 교계 최초의 전문 미술관으로서 오는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첫 기획전으로 '근세고승유묵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을 비롯 만공 용성 한암 만해 동산 효봉 청담 구산스님 등 고승들의 선향 어린 친필 글씨와 선화 60여점을 한자리에서 대할 수 있는 기회.

"첫 기획전으로 근세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큰 스님들의 선서화 묵적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그분들이야말로 급변하는 구한말 사회 정세속에서 전통문화를 고수해 내어 오늘의 불교를 있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단순한 문화유적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해온 유일한 문화공간이었다고 현호스님은 강조한다.

법련사는 한층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문화강좌를 개설, 오는 3월 6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최완수 정병삼 김대벽 조정현 신영훈씨 등 기라성같은 문화계의 권위자들이 미술 도예 사진 문화재 등의 강의를 맡는다. 특히 불일문화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단계를 밟게 해 다른 문화강좌와 달리 심도깊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점이 이채.

연건평 1천3백여평의 도심포교당 영산대법전은 앞으로 대법당의 완공과 범종봉안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역사 1천6백년을 상징해 1천6백관의 쇳물로 만들어진 범종이 봉안되면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법음이 가까이 있는 청와대는 물론 서울 시민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된다.

"종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본성을 돌아보고 법련사가 문화 예술인을 비롯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이 되어 '생활의 불교화'를 이끄는 선봉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는 현호스님은 법련사 영산대법전이 조계종립 송광사의 수행가풍을 도심에서 활짝 피어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경숙 기자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15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3월 9일 (토)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집짓기 60년…이젠 나무와 대화"

산문박의 수禪

대목장 정영진 씨



'쓰-윽 쓰-윽…' 대패질 소리가 매끄럽다.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 보수공사 현장.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를 이겨내려는 주위 작업자들의 고함을 듣지 못하는지 자그마한 체구의 노인은 대패끝을 따라 묵묵히 시선을 옮기고 있다. 마치 입정에 든 노스님의 얼굴처럼 무념무상, 무표정한 모습이다.

대목장 세명중 한사람

충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우리나라에 단 세명뿐인 대목장중 한사람인 정영진씨(76세). 16세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을 오직 나무를 다듬고 매만지는 일에만 전념해 온 정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씨가 나무와 인연을 맺은 것은 당시 목수로 이름을 날리던 부친의 영향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조수로 따라 나서며 이 길로 발을 들여놓게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절이란 절은 안가본데가 없어. 그러니 자연히 스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설법도 많이 듣게 됐지. 사실 법회때 뭐 외는 거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평생을 부처님 옆에서 살아온 셈이지."

이렇게 말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법주사, 해인사, 부석사, 불국사, 쌍계사, 화엄사, 동림사, 백련사, 상원사등 유명사찰 외에도 전국 각지 사찰의 신축·보수공사를 위해 절집에 머문 시간만 해도 햇수로 20년이 넘기 때문이다.

어떤 공사가 가장 인상에 남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다. 그리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다.

"법주사 팔상전과 천왕문, 금강문을 만들면서 비로소 부처님 집을 내 손으로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야."

그 이후 절문에 들어서면 아무런 사심없이 부처님 품속에 빠져들어 한사람의 수행승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며 갑자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평소 별다른 가르침이 없었던 부친 조차도 눈을 감으면서 인정했다는 그의 목수로서의 천재성. 그러나 정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승부근성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질 않았지. 왠지 무언가 부족한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그럴때마다 머리속으로 더 우아한 곡선미와 더 정교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곤 했지. 이러다보니 어떤 때는 잠을 못이루는 경우가 많고 건강을 해친적도 한두번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어. 최고가 되고 싶었지."

정씨는 우리의 고전건축이 몇백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건재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조상들의 세심한 정성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에서 보았듯이 요즘 건물이 너무 쉽게 헐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넘어 분노를 머금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정성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쉽게 쉽게 하려는 사고방식과 태도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얼굴 가득 서린다.

쉽게 지으면 쉽게 무너져

"요즘엔 목공일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대우도 시원찮고 힘이 드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 그렇지만 재래식 기술을 익히지 않은 엉터리 목수들이 신식기계를 쓰는 바람에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미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냐."

기계식 대패를 쓸 경우 곧게만 나가기 때문에 건축의 앙곡(昻曲)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제모양을 낼 수 없을 뿐더러 기계톱을 쓰면 나무가 흰대로 자연스럽게 잘라내지 못해 우아한 아치형 대들보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정씨에겐 대목장 후계자로 지정된 동생 극진씨등 후계자가 있어 그의 기술이 전수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멋이 없어. 차디찬 콘크리트에 부드러운 곡선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마저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아. 사찰이나 재래가옥을 봐. 모두가 둥글고 원만하잖아. 부모와 자식 등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왜 그런 것을 모르는지 참…."

점점 메말라 가는 우리네 정서와 상실돼 가는 인간성은 바로 우리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정씨. 그는 이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과 사람사이를 걱정하는 '큰바위 얼굴'을 찾는 '나무詩人'이 돼 있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집을 내손으로" 수행하듯 정성다해 몰두
현대식 건물 사람들 마음마저 콘크리트 속으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어. 그냥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배웠지. 그럴 때마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만 했어."

정씨가 그의 솜씨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우연한 기회다. 20세가 되던해 경북 영주 소수서원 보수공사를 맡은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대신할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서원관리소측에 부친 대신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는 당초 공기보다 빨리 완성했는데 부친의 솜씨를 능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었을 정도로 해어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정씨가 지금까지 맡은 공사는 문화재 보수복원공사만 60여건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해인사 장경각, 야은 길재선생사당, 전남 고흥 이순신장군사당, 김유신장군제각, 법주사 팔상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건축물들이 모두 정씨의 손에 의해 빚어진 것들이다.

산문박의 수禪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문 스님께서는 비유해서 '부'와 '자'가 상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하루 마음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마음공부 하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요?

〈임순택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답 염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유해서 말씀인데 줄이 있어야 염주알을 꿰어서 염주라고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줄에 알이 꿰이듯 마음의 줄을 꿰어 형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자는 그렇게 꿰어져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과거의 부와 현재의 자가 상봉을 해야한다, 상봉하지 않으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현재의 나를 전부인줄 알고 사는데 현재의 나를 있게한 그 근본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려고조차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번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려해볼 점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 분란이 일어 괴로운데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난리법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때 회사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주원 · 강원 속초시 조양동〉

답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한게 아니라 때로는 큰 파도를 치기도 합니다.

파도가 일지않고 늘 잔잔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물 속 깊숙히 사는 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 뒤집어 놓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서 먹고 위에 있는 양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지요.

또 그래야 바닷물이 뒤섞여 따뜻한 표면의 물과 찬 바닥의 물이 뒤바뀌어 서로서로 함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마음의 법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법입니다. 부와 자가 합일이 되면 그대로 자유인인데 이리 가도 하나, 저리 가도 하나니까 법신 화신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경소리 들으면 눈물이 쏟아져

문 목탁소리나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뜻도 모를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가끔씩 나가는 인근 사찰에도 못가게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미자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답 우리가 사람 몸 받기까지 수억 겁을 구르면서 예서도 살아보고 제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과거에 살던 습이 있어서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놈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과거의 '나'는 업식으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응이 된 것이지요.

봄이 되면 꽁꽁 얼었던 시냇물도 녹아 흐르듯이 업장이 녹는다고해도 되지요.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한다해서 야속해 하거나 반발해서는 안됩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마음으로 통신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말없는 묘법으로 통하고 두사람 사이엔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누구하고라도 다 그렇습니다만 가족끼리는 더 잘 통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 말로하지 않더라도 지극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공!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니 그렇게하지 않는 것 또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냐! 하고 말입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면 남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속의 지극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게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서로 나눠먹으니 함께사는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교훈 아닌게 없습니다.

그러니 근자에 겪으신 일도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하시지 마시고 마치 바닷물이 뒤집혀 윗물고기 아랫물고기가 공식 · 공용하게 되는 이치처럼 회사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늘 잔잔하기만 하다면 머지않아 물은 썩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기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듯이 세상이치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본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사도 순환을 했구나 생각하셔야지 시련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우리 몸에서 정맥 · 동맥으로 피돌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에 분란이 일어나서 한바탕 야단이 빚어졌다 하는 것도 이 정맥 · 동맥의 피돌기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건강한 회사가 되기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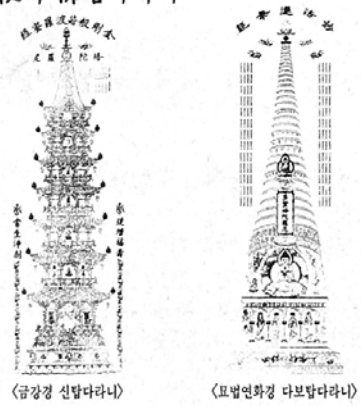
아마도 평소에 순환이 잘 안되었던 일면이 있은 모양이지요. 그러니 죽지않고 살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입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빙그레 웃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먹고 함께 쓰고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관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스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8〉

白侍郎六讚偈幷序 (백시랑육찬게병서) ②

今年登七十 老矣病矣 與來世 相去甚遐
금년등칠십 노의병의 여래세 상거심이
故作六偈
고작육게

금년 나의 칠십고개에 올라 늙고 병든 몸이라 내세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졌을새
그러므로 여섯개의 게를 지어

禮唱於佛法僧前
례창어불법승전
欲以趣因發緣 爲來世張本也
욕이기인발연 위내세장본야

불법승 삼보전에 무릎끓고 외어바치고 이로써 인을 짓고 연이 생기기를 바라 내세에 일이 벌어지는 근본이 되게 하노이다.

讚佛
찬불 부처님을 찬탄함

十方世界 天上天下 我今盡知 無如佛者
시방세계 천상천하 아금진지 무여불자

시방세계와 천상천하를 나(부처를 말함) 이제 다 알아마치니 부처같은 이 없습니다.

堂堂巍巍 爲天人師 故我禮足 讚歎歸依
당당외외 위천인사 고아예족 찬탄귀의

당당하고 높고높아 하늘과 인간계의 스승이 되실새 그러므로 나는 부처님 발아래 예배하고 찬탄하며 귀의 합니다.

讚法
찬법 불법을 찬탄함

過現當來 千萬億佛 皆因法成 法從經出
과현당래 천만억불 개인법성 법종경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천만억 부처님들이
모두 다 진리(법)의 인연으로 성불하고 그 진리는 경을 좇아 나오니

是大法輪 是大寶藏 故我合掌 至心回向
시대법륜 시대보장 고아합장 지심회향

이것이 큰 법바퀴이며 이것이 큰 보배창고 일새
그러므로 나는 두손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나이다.

讚僧
찬승 스님을 찬탄함

緣覺聲聞 諸大沙門 漏盡果滿 衆中之尊
연각성문 제대사문 누진과만 중중지존

연각 성문과 모든 큰스님들이 모든 번뇌를 벗고 과보원만하여
무리 가운데 존귀한지라.

假和合力 求無上道 故我稽首 和南僧寶
가화합력 구무상도 고아계수 화남승보

화합의 힘을 빌어 위없는 도리를 구할새 그러므로 나는 머리조아려 승보전에 귀의하나이다.

讚衆生
찬중생 중생을 찬탄함

毛道凡夫 火宅衆生 胎卵濕化 一切有情
모도범부 화택중생 태란습화 일체유정

마음이 털끝같이 경계바탕에 휘날리는 범부와 화택중생과(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불난집의 세 아이들 비유)
태로, 알로, 습해서, 화해서 낳는 사생의 일체 유정들이

善根苟種 佛果終成 我不輕汝 汝無自輕
선근구종 불과종성 아불경여 여무자경

선근을 진실로 심으면 마침내 불과를 이뤄내리니 나는 그대들을 업수이여기지 않을 것이매(둘로 보지 않을것이매) 그대들은 자신을 업수이여기지 말지어다.

懺悔
참회 죄업을 참회함

無始劫來 所造諸罪 若輕若重 無大無小
무시겁래 소조제죄 약경약중 무대무소

처음을 알수 없는 억겁이래로 지은바 모든죄에 이렇듯 무거운것, 가벼운것, 큰 것 작은 것이 따로 없으므로

我求其相 中間內外 了不可得 是名懺悔
아구기상 중간내외 료불가득 시명참회

내가 그(죄지은 마음의 상을) 모양을 찾아보니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어 마침내 가히 얻어 못하는지라 이를 일러 참회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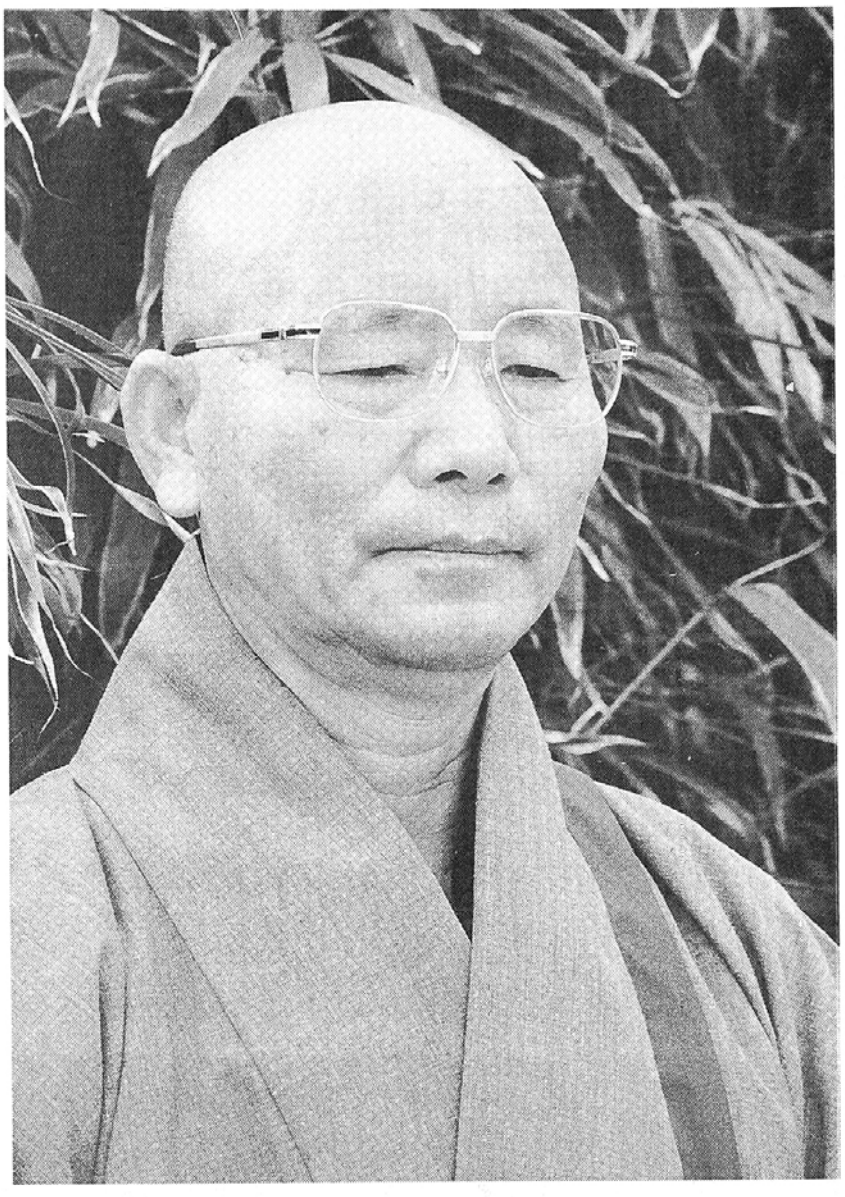
龍 眼

"선근을 진실로 심어 佛果 이루길 원하며 두손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회향"

★ 지상법석

"부처님 8만4천 법문"

백운스님 〈미륵사 주지〉



약력
- 1934년 生
- 55년 범어사 대교과 졸업
- 화엄사, 송광사 범어사 강원, 강주 역임
- 〈초의 선사〉 〈원효성사〉 〈양치는 성자〉 〈진묵대사〉 등 지음

상대성이론 밝힌 아인슈타인 박사는 '석가모니불이야말로 과학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불교에 심취

아인슈타인 박사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소위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라는 이론과 뒷날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자장(磁場)의 이론(理論)'이라는 두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대성이론은 뒷날 '일반상대성이론'과 '특수상대성이론'으로 구분 지었습니다만 상대성이론의 내용은 자연과학의 기본 이론인 인과론(因果論)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과론이자 자연과학의 기본 이론인데 상대성이론도 바로 이를 바탕한 것입니다. "무슨 사물이든 하나의 개체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상대되는 또 하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물의 근원은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항용 구사했던 인과의 법칙을 발전시킨 '상대성이론'이 발표되자 과학계는 그를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오늘날의 과학문명을 이룩하였으니 안 인슈타인 박사를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할만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원자탄으로 인해 기실 일본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를 아인슈타인 박사는 몹시 가슴 아파하였으며 전후에는 평화애호자로, 전쟁 반대론자로 변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일본의 탕천(湯川)이라는 과학자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는데 박사는 그를 미국으로 초청하고 극구 치하하였습니다. 박사와 탕천은 여러날 함께 있었으며 많은 과학 얘기가 오갔는데 탕천은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께서 상대성이론을 내놓으셔서 그를 바탕으로 과학이 급속도로 촬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상대성이론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박사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탕천은 불교에 연기론(緣起論)이 있는데 상대성이론과 똑같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여러 경전에서 언급한 '연기론'을 차근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저것에 의하여 있고 저것은 이것에 존재한다" 경전에서 연기론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성이론과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박사는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는 "귀국하거든 그 경전의 내용을 발췌하여 보내 주시오"하였고 탕천은 쾌히 승낙하고 불경에 담긴 연기론을 여러 경전에서 뽑아 영역(英譯)하여 보냈더니 박사는 다 읽고나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더러 학계에서 과학의 아버지라 지칭하였지만 진짜 과학의 아버지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시다"라고.

이후 박사는 탕천이 이별하며 선사한 단주를 항상 호신불처럼 손에서 떼지 않았고 불경탐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박사를 방문한 인사들에게 "나는 동양인이요"하고 서슴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자장(磁場)의 이론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디다'하는 내용입니다. 저 공간을 향해 멀리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단만큼 만일 그 공간의 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수명은 우리 인간들에 비해 엄청나게 길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브라운 박사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자장의 이론'의 허실을 실험해 본 결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의 시간의 흐름이 더딘 것을 알아 내고 인공위성을 외계에 발사했던 것입니다. 자장의 이론대로 계산한 결과 지구에서 5만 광년(光年)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 태양광선의 속도와 똑같은 비행물체를 타고 은하계를 다녀온다면 고작 17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장의 이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경전에는 천상세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사왕천은 지구시간으로 50년간 일주야(一晝夜)이고 그곳 사람의 수명은 오백세이다"하였는데 이를 계산하면 지구시간으로 9백만년이 됩니다.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양성 전문 교육도량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ㅇ불심이 돈독한 분
ㅇ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ㅇ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ㅇ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ㅇ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사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 · 자연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 · 선관삼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회복사례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염, 천식, 축농증, 신경통, 디스크
- 피부병, 부인병, 불임증, 성병, 교통사고, 악물중독 외

■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지상법석

오늘날 과학문명 뿌리”

“21세기에는 신을 믿는 종교 사라지고 마음 믿는 종교만 남는다” 서양목사 예언

인과론은 원자 물리학등 현대과학 이론 골격

“만물이 다 마음에 있다” 진리 믿을때 자유누려

다시 말하면 천상의 첫 하늘인 사왕천은 우리 시간 단위로 9백만세를 산다는 말이므로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십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왕천은 겨우 하루낮 하루밤 즉 일주야가 흐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 나이로 오백세가 일생인데 지구시간으로는 9백만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왕천보다 한단계 멀리 있는 도리천은 지구에서의 백년이 그곳의 일주야이고 그곳 시간으로 천년을 사는데 지구시간으로는 2천7백만년이 됩니다. 또 그위의 수야마천은 도리천의 배수(倍數)이고 도솔천은 수야마천의 배수이며 그위 하늘은 또 그 배수입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딘 것을 구체적 숫자로 설명하였으니 이 얼마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설명입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불경에서 언급한 과학적인 말씀들을 탐독하고는 부처님이 진짜 과학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는 “나는 부처님 나라인 ‘동양인’이다”하고 외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과학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사회는 무엇이든지 ‘과학적’인 것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철학도 ‘과학적’이라 따지려들기 때문에 불경에 담겨진 과학과 현대과학을 접목 시켜본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살을 죄악이라고 단정지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행위는 죄악이다. 자기 한 생명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명들을 함께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어른을 기준하여 인체에 2백억 내지 4백억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공생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부에 외지하여 살고 있는 미생물체는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면 미생물체들도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내가 자살함으로써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마음에 따라 수백억의 생명체들은 희로애락을 갖습니다. 내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여 남에게 칭송을 들고 자신 역시 기쁨을 갖게 되면 내 몸에 의지하고 있는 수백억의 생명체들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번뇌망상에 빠져 허둥대게 되면 그 많은 생명체들도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니고 쓰느냐에 따라 많은 생명체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늘 옳고 좋은 일만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기독교 목사인 서양의 한 원로는 그의 저서인 ‘20세기의 종교’에서 현하 세계의 종교가 21세기에 이르면 신(神)을 믿는 종교는 자연도태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힌두교, 회교 등 종교의 대부분을 가리킵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자연도태 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 신의 권능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여 소위 신의 권능을 인간이 모두 해내게 된다.”

예를 들면 성서에서 “하늘을 나는 권능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하였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비행물체를 제조하여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만이 작은 과일을 크게하고 작은 동물, 식물을 엄청나게 크게할 수 있다 하였는데 현재 우리 인간은 이를 모두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인간이 모두 해내고 있으니 신을 믿는 종교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가 깡그리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교학자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지는 대신 마음을 믿는 종교만이 남게 된다. 마음을 믿는 종교는 불교다. 불교는 신을 부정하고 마음을 강조한다. 모든것은 마음으로 이뤄진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주인공인 것이고 우리의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요, 온갖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마음인 것입니다. 기실 신이라는 것도 마음안에 있지요. 마음으로 신이다 인간이다 하고 분별함으로써 신도 인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을 여의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으므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입니다.

> “마음자리 깨달으면 온갖 번뇌 눈녹듯 녹고 본심을 망각하고 살면 육도윤회 수렁서 헤매”

21세기에 이르면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비과학적인 것은 자연히 사라지고 참다운 종교요, 마음의 종교인 불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목사출신의 종교학자는 사실 자기 생명을 걸고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사이면서 기독교가 도태 된다는 말을 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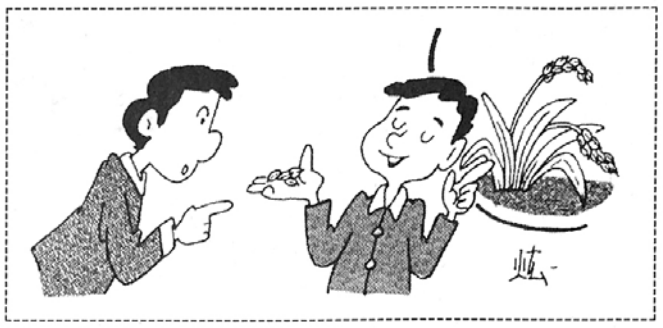
공자(孔子)의 오도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에서의 일(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맹자(孟子)를 비롯한 여러 성현들이 한결같이 ‘일(一)이란 곧 인(仁)’이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자(朱子)는 “일(一)이란 곧 심(心)이다”라고 설파하였는데 유교의 인(仁)이 마침내 심(心)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주자는 불교에서 마음을 내세우고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공자가 이야기한 도(道)는 곧 마음임을 밝혀 진리(道)는 마음(心)이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란 무엇이기에 21세기에는 불교만 남게 될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대해탈자, 대자유인이 되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낮과 밤으로 번뇌망상이라는 굴레에 꽉 얽매여 있습니다. 자신의 청정한 마음자리(心地)를 깜박 잃어버리고 번뇌망상의 속박에 얽매여 갖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9년간 고구정녕히 해탈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해탈하는 법이란 바로 깨달음(覺)입니다. 허망무실(虛妄無實)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청정여여한 자기 마음을 찾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본심을 깨달으면 온갖 번뇌망상이 눈 녹듯 사라지므로 이를 해탈이라 이르고 해탈하면 대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기실 번뇌망상은 본시 공(空)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심을 망각함으로써 번뇌망상에 예속되어 육도윤회(六途輪廻)의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불교는 여러 각도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기에 따라 한문으로 들어가서 용맹심을 내어 정진해 가노라면 반드시 해탈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마음은 천고만고라도 변치 않으므로 마음을 가르친 불교는 가장 과학적인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9

양 형 진

무한한 가능성

“떨어지는 오동잎만 봐도 계절을 알듯 인간의 사고능력 분별세계 뛰어넘어”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사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오히려 타당한 듯한 경우도 있는데 부처님은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부처라고 하셨는가?

인간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속단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발달하여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 주고 있어서 놀라운 일이지만,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욱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10을 3으로 나누면 컴퓨터는 그것을 3.33... 으로 기억해 둔다. 여기에 3을 다시 곱하면 9.99... 가 된다. 다시 말해서 10을 3으로 나누고 거기에 3을 곱했을 때, 무한히 10에 근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10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14... 라는 식으로 소수점 이하 수천자리까지 계산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원주와 지름의 비라는 수학에서의 직관적인 의미를 인간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현재의 컴퓨터는 문 틈에 보이는 고양이 꼬리를 보고 그 뒤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한 잎 떨어지는 오동잎으로 천하의 가을을 알기도 한다. 언어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이다 맛을 본 사람이라면 사이다 맛이 짜릿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사이다의 맛을 마음 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별을 넘어선 절대의 세계가 언어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로서 말을 떠난다는 (依言遣言)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진화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 지능의 발달은 인간을 그 어느 등물보다도 탐욕스러운 것으로 만든 부정적인 일면도 있으나, 이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에 집착하지 않고 달을 볼 수 있기도 하며, 8만4천 법문을 다 읽지 않고도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법문을 펼치시며,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니 오직 자신과 법을 의지하여 정진하라고 하셨을 것이다.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한 알의 쌀알을 아무리 들여다 본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돋아나며 잎이 번성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모습을 볼 때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아뢰야식에는 35억년 중생 삶의 번뇌 망상이 집적되어 여래의 덕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래의 덕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마치 설산의 본체는 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자리하고 있고, 캄캄한 밤하늘 어디를 보아도 태양은 보이지 않으나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과 같이, 번뇌망상은 상주불변하는 진여와 같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진망화합식(眞妄化合識)이라고도 한다. 이 진여가 누구에게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불교도가 가져야 할 큰신심이다.

이 모든 것이 불교의 상징인 연꽃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연은 진흙탕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줄기를 뻗어올려 이상의 푸른 하늘을 향한다. 그러나 그 뿐, 물 위에 나온 연은 더 이상 구차스레 줄기를 뻗어 하늘을 향해 다가가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더 다가가더라도 이상에는 어차피 이르지 못한다는 체념 때문이 아니라, 하늘은 이미 그 안에 가득하여 더 이상 장엄할래야 장엄할 수 없는 세계가 한 송이의 연꽃 안에 완벽하게 궐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꽃은 다만 그대로 연꽃일 뿐, 그 안에는 흙탕물도 푸른 하늘도 나고 죽음도 없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다. 그 모든 분별을 떠난 무차별의 세계로서의 완벽한 종합, 그 불이의 세계가 곧 연꽃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의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신국판/① ②권/각권 5,000원 (㉚㊱권 집필중입니다.)

울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용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 · 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횃불이 되었으니 · · · · · ·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

고은 불교대하소설



또 하나가 나타나다

그동안 아귀계의 갖은 고통을 함두와 함께 감당한 불이는 정녕 하늘 속의 어떤 별무리 가운데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시공(時空)을 뛰어넘은 우주 허공계의 어느 공간을 한없이 떠 돌아야 하는 미아(迷兒)라도 되어버린 것일까?

그것은 불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하늘 속의 이름 없는 정령(精靈)이 된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었다. 불이는 그렇게 형체가 아닌 것으로 하늘 속의 투명한 실재가 되고 있었다.

정작 그는 함두와의 하늘 속 이별을 훨씬 뒤에야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이별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나의 불덩어리로 합쳐져서 눈부신 빛을 뿜어대며 지하의 아귀계에서 폭발한 것 같은 그런 승천(昇天)으로 치솟았던 환희는 지금 정반대의 처지에서 온데간데 없었다.

과연 불이는 별무리와 별무리 사이의 성긴 우주 공간에서 어떤 별 하나를 만났다. 그 별은 너무나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다가 불이의 빛이 다가가자 갑자기 뚝 빛이 멎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그 별의 의지에 의해서 빛을 꺼버린 것이 아니라 불이가 다가가는 것과 함께 그 별에 반사되는 불이 자신의 빛도 다했던 것이다.

우주의 여러 별들은 스스로 빛을 뿜어대는 뜨거운 별과 그런 별의 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있다. 이를테면 발광체(發光體)와 반사체(反射體)가 그것이다. 그런데 반사체의 별이야말로 발광체로부터 받은 빛을 가장 아름답게 재생산함으로써 우주 속의 보배구슬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불이의 빛은 이제까지 그 스스로 타오르던 여진 때문에 수명이 다된 발광체였으나 그가 만난 별은 다른 발광체의 빛을 반사시키는 별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 별은 불이의 빛이 남긴 빛의 잔재를 가까스로 받아들여서 희미꾸레하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가구려. 돌아가구려. 이곳은 곧 커다란 혼란이 시작될 것이오"라고 그 별이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것처럼 불이에게 간절히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기 그대로 있고 나만 피하라는 것이오?"

"나는 이 흐린 업(業)을 피해서는 안 되지만… 보아하니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멸망을 체험할 처지가 아니오. 당신은 사바세계로 내려가야 할 것이오… 제발 돌아가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별의 표면에 박혀있던 아주 커다란 암석이 떨어져나오며 불이의 빛을 내치는 것이었다.

아니 그 암석은 불이의 빛에 늘어붙어서 불이를 오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일찌기 불이는 하늘로의 영문 모를 승천을 통해서 우주의 일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았거니와 다시 그는 그 두려움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그가 사바세계 한군데를 무연히 내려다보던 일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아주 먼 거리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로 되어 있었던가.

"저기다!"

라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미 불이의 몸에 늘어붙은 다른 별의 암석까지도 그 소리에 의해서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어디입니까?"

라고 그 암석이 물었다.

"저기다! 저기"

그리하여 불이의 빛은 더이상 어떤 주저도 없이 쏜살처럼 저 아래의 사바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불이의 빛을 내달리게 하는지 몰랐다. 불이는 달리고 달려갔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일은 출발과 목적지에의 도달 뿐 아니라 그 사이의 이동 자체가 가장 신성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이는 "저기다!"라는 발견과 함께 그의 출발은 조금도 지연될 수 없는 절실함으로 되어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내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 광속(光速)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 몸의 일부분들이 너무 빠른 이동 때문에 부서져나가 하늘 속의 티끌로 되어버리는 과정에서도 불이의 몸에 붙어버린 다른 별의 암석은 끝내 한 몸이 된채 불이의 운명과 함께 하고 있었다.

우주의 성층권(成層圈)에 진입했는지 불이의 빛은 다시 뜨거워졌다. 주위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대기(大氣)를 태우면서 하나의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불이의 몸이었다.

그 불덩어리는 사바세계의 한밤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땅 위에 떨어졌다. 땅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빛의 불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별의 불덩어리가 땅 위에 도착하는 동안 이미 타버린 뒤였고 정작 땅 위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불이는 다시 한번 인간계에 올 수 있었다.



66

우주의 미아가 돼 떠돌던 불이도 누란의 사막 위에 환생

아침 해돋이의 찬란한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합두가 불이에게
낮게 말했다 "아… 어디서 뵌듯 합니다"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였다.

그 느낌은 사람으로 태어난 불이의 새로운 눈으로 그가 내려 온 밤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의 크고 작은 산재(散在)로 차 있었다. 그렇다면 허망하다는 느낌이 아름답다는 느낌에 잇대어진 것으로 되었다.

불이는 방금 인간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굳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인(成人)이었다. 그의 의식이나 육성도 성인의 그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 그가 서 있는 주위의 땅을 둘러보았다.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숫제 모래 뿐이었다.

그는 고독하였다. 존재의 시작이 그런 고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가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는 거창하게 부풀려진 정신상태에서 마치 우주 속의 라프라스 성운(星雲)에서 태양계가 분리될 때의 그 시원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이 세상을 알게 될 때의 고독과도 같은 그런 고통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실로 옛날 옛적의 부처조차 태어나기 이전의 그 특수한 순간에 무기물의 복합적인 합성이 유기체를 만들어내고 그 유기체가 핵, 원형질, 세포막 등을 갖춘 한 개의 세포로 되고 그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되어가는 생명의 개체가 된 것이 아니던가.

그 개체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치다가 적자(適者)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듯이 차츰 자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되어 그 시력(視力)을 다해서 응시할 따름이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해가 불근! 사막의 지평선 위로 솟아올라 그 성급함을 중단하고 있었다. 그때 불이는 해돋이를 맞이하던 이제까지의 경건한 방향에서 돌아섰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다. 막 떠오르는 동쪽 태양의 새로운 빛을 받은 스투파 전체가 마구 불타오르는 한 줄기 기둥처럼 찬란하였다.

바로 그 스투파 속에서 마치 화재속에서 뛰어나오는 짐승처럼 두 개의 물체가 나오고 있었다. 그 물체는 스투파 밖으로 나와 한동안 사막의 모든 곳을 돌아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물체는 불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쪽 지평선은 왼쪽 부분은 모래가 부지런히 몰려가서 쌓인 모래언덕 때문에 결코 지평선이라고 할 수 없는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먼 곳의 모래언덕에 물들여지는 붉은 빛깔은 몹시 아름다웠다.

"태양이시여!"

마침내 지평선 일대가 갑작스럽게 밝은 빛깔을 펼치면서 한순간 캄캄한 느낌을 주다가 눈부신 햇빛을 뿜어 올리는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실로 엄청난 동작이었다.

누구 하나 그런 동작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았다. 불이도 오로지 그런 광경을 멀리

"아!"

라는 감탄사가 입안에서 흘러나왔다. 그 감탄사는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울어대는 응애응애와 같은 소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불이가 태어난 밤의 땅이 어디인가.

바로 누란의 사막이었다. 누란의 사막 한 복판에 서 있는 불품 없는 스투파 언덕의 그 굳은 흙으로 된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합두와 만화가 나타난 그곳이 아니던가.

하지만 합두와 만화는 그 일대의 어디에도 자취가 없었다. 그 뿐 아니라 불이가 그곳에 내려온 일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불이는 마치 우주 속의 미아가 되었을 때처럼 허망한 사막의 폐허에서 새벽을 맞이하였다.

사막의 동쪽 지평선은 벌써 어떤 커다란 변혁을 일으킬 것 같은 징후로 어둠 속의 핏빛을 음울하게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어디선가 동물의 환영(幻影)이 그런 음산한 핏빛을 향하여 달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환영은 동물의 그것이 아니라 기온이 떨어진 밤의 사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는 형상이었다.

이윽고 하늘 전체가 붉은 빛으로 확대되어 갔다. 한 마리의 부지런한 새도 없는 빈 하늘만이 저혼자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누가 태양을 금까마귀(金烏)라 하였던가. 이런 해돋이 이전의 새벽 하늘에 까마귀 한 마리라도 날기를 바라는 비원이 그런 상징을 만들어냈을 것인가.

불이는 어떻게 그 첫날밤을 보냈는지 몸

있었다.

두개의 물체는 사람이었다. 바로 만화와 합두였다. 그들은 밤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스투파 족으로 올라갔던 것이었다. 다행하게도 그 스투파 밑의 한 군데에 누군가가 머물었던 것같은 구덩이가 생겨서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대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두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경계하다가 그런 경계심을 줄이면서 다가갔다.

"나는 만화라 합니다."

"나는 불이입니다."

그러자 합두가 "아… 어디서 뵌듯 합니다"라고 낮게 말하였다. 어찌 뵌듯 할 정도이겠는가.

그림 · 조향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9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⑥

전기속의 佛陀 〈4〉

"오직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하라"

부처님은 머리를 북으로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신 채로 열반에 드셨다

"모든 것은 덧 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성도한 부처님은 다시 길에서 45년간 일체중생을 교화하시다 열반에 드셨다. 이 부조물은 데바닷타가 부처님을 공격하라고 풀어놓은 코끼리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아마라비티에서 출토된 2세기경의 작품이다. 마드라스 박물관 소장.

카필라의 숫도다나왕은 아들이 붓다가 되어 존경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아들이 보고 싶어 카필라를 방문하도록 청하는 사신을 보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부처님이 회고해 보니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열두해가 넘어 있었다. 부처님은 2만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수도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직전 태어났던 아들인 라훌라와 왕위를 계승할 아우난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인 아난다와 데바닷타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다. 특히 이 두 사촌형제 가운데 아난다는 일생을 바쳐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봉하였으나, 데바닷타는 부처님 교단에 반역하여 부처님을 괴롭혔다.

어느날 어부들이 당나귀, 강아지, 망아지, 원숭이 등의 서로 다른 머리가 백개나 달린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부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그 물고기는 전생에 수도승이었는데 어리석게도 동료들을 '당나귀 대가리', '강아지 대가리'하며 놀려대다가 이 생에서 저런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데바닷타는 종단의 개혁을 주장했다. 승려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노천에서 자야하며 물고기 음식은 피하고 성안이나 민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남달리 큰 야심을 품고 있던 그는 부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가다의 태자 아자타삿투에게 접근하여 부처님을 암살할 것을 사주했다. 부왕을 옥에 가두고 왕위를 빼앗은 아자타삿투는 열여섯명의 자객을 보내 부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몸이 떨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에 감화되어 모두 제자가 되었다.

한번은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데바닷타 일행이 숨어있다가 아래로 바위를 굴렸다. 그러나 바위는 좁은 골짜기에 걸려 멎고 말았다. 또 한번은 부처님을 향해 사나운 코끼리를 풀어 놓았다. 그러나 그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데바닷타의 음모는 세번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설(異說)에 의하면 부처님에게 달려든 코끼리의 수가 수십마리에 이른다고 했다. 그때 부처님의 손가락에서 사자들이 뛰쳐나와 코끼리를 물리쳤다고 한다. 마침내 분노한 대지(大地)는 데바닷타를 삼켜서 영원히 화염속에 휩싸이게 했다. 부처님께서 데바닷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먼 옛날 큰 거북이 한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인의 목숨과 짐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물에 오른 그 상인은 배은망덕하게도 선행(善行)을 한 그 거북이를 잡아다 불에 구워 먹었다" 부처님은 이야기 말미에 "그 상인이 바로 데바닷타이고, 난 그 거북이였다"고 말씀하셨다.

베살리 시(市)에서 부처님은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던 여인인 암바팔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후에 자신 소유의 농원을 승단에 기증하게 된다. 이렇듯 부처님은 유녀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을 근기에 맞게 교화했다.

45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 악신(惡神) 마라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말하길 "이제 종단도 확립되고 승려의 수도 충분하니 그만 이 세상을 떠나시는게 어떠냐고 전했다. 부처님은 석달 뒤에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땅은 전율했고 태양은 어두워졌으며 폭풍이 몰려와 뭇생명은 겁에 질렸다.

전설에서는 부처님은 몇 천년이라도 살 수 있지만 자의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사후 부처님은 인드라천(天)으로 올라 가서 불법(佛法)의 보호를 당부하셨다. 그 다음 용궁으로 내려가셔서 용왕으로부터 불법의 수호를 약속받으셨다. 신들과 용들과 악마들과 땅과 별의 정령들과 나무와 숲의 정령 등 모두가 부처님께 죽음을 거두시도록 간청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상(無常)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대답하셨다. 쿠시나가라에서 금세공(金細工)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병이 악화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신 후, 나무 아래 누우셨다. 나무는 놀래서 갑자기 꽃을 피웠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종단의 분열과 불화를 예언하셨다. 그리고 오로지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머리를 북으로 향하고 얼굴은 서쪽으로 바라보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신 채로 열반에 드셨다. 때는 죽음을 맞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인 저녁무렵이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보르헤스는 생각하기를, 궁극적 진리는 이성적 논리보다는 오히려 신화나 설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작가인 보르헤스는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전(佛傳)〉이나 〈불소행찬(佛所行讚)〉 등에 문학적으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가르침에 주목했다.

그는 불교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전승 설화를 집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첫장의 소제목을 서구인 기준으로 '전설상의 佛陀'라고 붙였다. 편역자는 그대로 직역하였는데 한국 독자들의 오해가 염려돼 이번 호부터 제1장 제목을 '전기속의 佛陀'로 바꾼다.

나의 수행일기

김 성 규 〈영남대 교수〉



'색즉시공 공즉…' 독송하며 전율

남산 칠불암 마음의 고향…석굴암서 '견성' 발원

나는 전생에 수행자였던 것 같다.

처음 불교를 접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에 한 점 흐트러짐도 없으며, 내가 이룩해야 할 불사에 대해서 한번도 의심해 본적도 없다. 경전 되번역 불사, 이것은 내가 이생에 꼭 이루어야 할 내 일인 것이다.

이제까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환희로움이 몇 번인가 있었다.

첫번째 환희로움은 처음 불교와 마주치게 된 1970년, 반월성 벚꽃이 환하게 핀 4월의 봄이었다.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시내 법장사에서 열리고 있는 불교학생회 법회에 참석하였다. 잠시 후 반야심경 봉독이 있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다시 펼쳐놓고 읽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순간적으로 일만볼트의 초고압이 전신을 휩쓸었다.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전율로 뜬눈으로 하룻밤을 새웠다. 그 후 몇개월 동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후 고1 어느 토요일 밤에 분황사 법당의 부처님 뒷켠에서 다리 틀고 앉아 '육조단경'을 읽었던 인연으로 반드시 나도 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칠불암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원효스님이 남산의 혈사에서 일생을 마감했듯이 나도 남산 성지에서 내 뼈를 묻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 그 해 여름방학은 도문스님의 배려로 남산 칠불암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때 안흥부 형님이 지도를 해 주셨고, 정강주 선배님이 계셔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다. 우리들은 칠불암 밑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요사채에서 묵고 있었다. 어느날 밤 폭우가 쏟아져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집이 무너져내릴 것 같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몇 년 후 칠불암을 찾았을 때 그 요사채는 흔적도 없었다. 정감어린 요사채가 없어지고 보니 우리 집 같은 기분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손님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꼭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칠불암에는 물이 없어서 밑에 있는 요사채의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 당번이었다. 그러나 록 참선을 하고 다음날 산을 내려갈 때면 꼭 도인이 된 기분이었다. 어떤 때는 분황사와 황룡사지에 놓여져 있는 넓은 바위에 앉아서 밤새도록 참선을 하다가 새벽 이슬에 온 몸이 촉촉히 젖기도 하였다.

원효가 지은 '대승기신론소'는 잊을 수 없는 책이다. 처음 대승기신론소를 펼쳤을 때 삼귀의에 대한 해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이 목숨을 거두어 진리의 바다에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에 몰입되어 몇 시간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외우던 삼귀의의 진정한 뜻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내가 경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경주에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도의 반은 이룬것 같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경주에서 태어날 것이며 진리의 성지 경주 남산에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일생을 바칠 것이며 경주에다 내 뼈를 묻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탓하랴
내가 태어난 이 땅을 탓하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탓하랴
아서라
내가 선혜와 같이 지극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불토인데.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산제 복용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장소, 체족제, 일분 · 저연당 · 식공심단백질 심취
• 수련내용 일물심태수련 · 신관심태수련 · 견단수련
• 신관탄식수련을 맺고 나면 성정호근문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엘리로나이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본인은(49세, 女) 가족이 없는 혼자 몸으로 사찰에서 스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 (서울) 914-920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리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군승단
육 · 해 · 공군 군승단에서는 군포교를 함께 할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명
자 격 대졸이상 남자로서 군종병 출신이거나 신심있는 불자로서 PC가능자
보 수 교계보수수준
문의 및 연락 군승단 사무실 (748-1728, 749-8646)

한민족정통 (단전 기 호흡) 수련법
제1기 지도자 과정모집
◆수련과정,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운기법 36동작 육기법, 생식법, 심관법, 쑥뜸법
◆지방출장 지도 가능함
◆일시 : 3월 24일부터 6개월 과정
◆매주 일요일
특전 1. 수료증, 지도자 자격증 발급
2. 수료자는 본회의 증신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및 해외에 도장을 개설할 수 있음.
3. 도장 개설시 본 협회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함
■회비 : 500,000원
■전화 : (02)735-6795, 6796 / 팩스 : (02)730-9298
한국신선도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빌딩 4층
한국신선도협회 지도 : 회장 이해창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 光 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령사(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태화사):법당 수미단 승각 복전함
• 음성(상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승각
• 포천(학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 · 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3·1절 77주년 특집

일제, 승려신상 샅샅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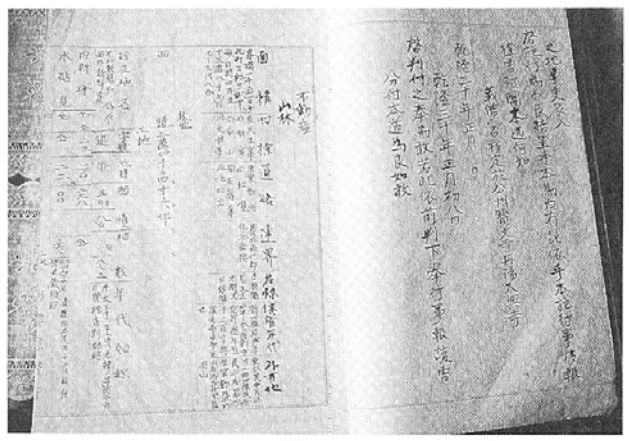
본지 독점취재 | 이종학씨 법주·백양·보현사 '조선총독부 출장조사서' 소장

사찰내력·승려 친족까지 파악…불교 장악과정 연구자료

일제가 1911년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한 직후부터 전국의 본사급 사찰에서 수행중인 승려들의 개인신상을 포함한 사찰재산 소유토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본사급 사찰과 거주승려에 대한 상세한 사찰(査察)의 내용은 사료수집가인 이종학(70세)씨가 소장하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와 장성 백양사, 묘향산 보현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각권당 2백쪽 내외의 분량으로 묶여져 있으며 조선총독부의 어용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이 직접 현지에서 조사하고 필사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 돼고 있다.(보고서 간기에 붉은 인쇄체로 '조선총독부중추원'이라 명기됨).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은 〈조선사류〉〈지지류〉〈문집류〉〈잡서류〉 등 한국역사관련 문집 160여점을 편찬했던 기구였다.

이씨가 3·1절 77주년을 맞아 본지에 단독 공개한 〈법주사 보고서〉는 사찰의 내력과 종파, 주지, 재산관계, 역원, 관련 계(契), 본말사 관계, 전답, 산림, 소작관계, 임차, 승니와 사찰관계 부모 친족 가족관계, 재산상속관계등의 세밀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1914년 3월2일부터 25일까지 담당관과 위탁통역관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기록한 이 보고서의 표지는 백지이며 첫장은 '출장조사서'란 표제와 조사



◇일제는 조선총독부산하 중추원을 통해 사찰령 공포 직후부터 전국 사찰재산과 승려의 개인신상까지 파악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은 1914년 법주사의 부동산을 조사한 내용.

사항란의 '사찰과 관련한 조사사항' 조사지방란의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조사일시, 조사담당자 이름등이 적혀 있다.

아직 관련학자들의 해석과 고증은 거치지 않았으나 이 보고서는 1910년 강점 이후 일제의 불교계 장악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대사를 연구하는 혜봉스님은 "중추원이 한국 역사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 편찬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찰과 승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며 "이들 문건에대한 세밀한 검토가 실시돼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법주사 백양사 보현사의 보고서를 25년전 고서점에서 구입했다는 소장가 이종학씨는 "적당한 때에 공식 검증을 거쳐 이 자료들을 모두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만해스님 친필원고 용성스님 서간문 발견

◇기미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중의 불교계 대표인 만해스님의 친필원고(위)와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친필 서간문(아래)이 최근 발견됐다. 두 스님의 친필은 오는 3월 6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공개된다.

용성·만해스님 일대기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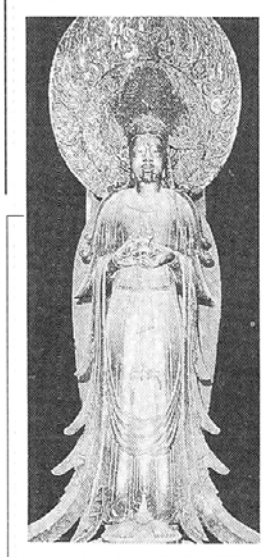
불교TV가 3·1절 77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마련 3월1일 방송한다.

3·1운동과 관련된 전국 사찰의 현장을 직접 찾아 고증을 통해 불교의 활약상을 새롭게 발굴해 낸 '3·1운동과 불교(PD 김종현)'과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한 '용성대선사(PD 장동홍)'가 바로 그것.

한편 교양전문 케이블TV인 센추리TV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만해스님의 일대기를 연대별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만해 한용운(PD 최준호)'를 방송한다.

어린이 3·1 만세운동 재현

극단 '동쪽나라'는 3·1절을 기념해 3월1일 오전 10시~1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 1백여명이 참가하는 '높이 솟아라, 겨레의 얼—어린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갖는다. 참가문의 263-8438.



◇백제사람 지리불사가 만든 구세관음상은 현재 일본 법륭사 몽전에 보관돼 있다.

국보 '반가사유상' 등 '우리것' 3만여점

백제관음·담징벽화등 日, 한국문화재 은폐

일본은 자국의 국보·보물 등 많은 문화재의 연원이 고대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 역사왜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식조사된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3만1천2백여점. 그러나 이들 문화재가 '한국 것'이라는 소개를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일본 국보1호인 교토 광륭사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신라 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고 역사교과서는 물론 박물관·전시장 등의 안내문에도 그 연원이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없다.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으면서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법륭사의 '백제관음' 역시 이름은 물론 그 연원이 한국이라는 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음에도 '유래를 알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법륭사 '구세관음상' '비단벌레 불궤상' '천수국수장' 등 빼어난 예술미를 자랑하는 이들 문화재 역시 그 어디에도 연원이 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없다.

발견당시 일본고고학계 최대의 발견으로 평가됐던 아스카 역사공원에 소재한 '다카마쓰총 고분'에서도 한국 고대 고구려인이 만들었다는 안내문 또한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나라(奈良)지역 관광안내 책자들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다카마쓰총 고분이라고만 적고 있다.

또 최근 東京都미술관에서 열린 '법륭사 금당벽화전'에서도 벽화를 그린 담징의 이름은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법륭사 '석가삼존상'을 만든 백제인 자리불사를 일본의 책자들은 '중국인'으로 조작하고 있거나 국적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귀화인' 또는 '도래인(渡來人)'으로 기록해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인지를 숨기고 있다.

한명우 기자

임제종운동 불교개혁 근원

김광식씨 논문 '1910년대 불교계…' 매종·보종 과정 분석

송광사중심 영호남 保宗세력 결집
한용운스님등 불교자주화 추진
임제종운동 ↔ 조동종맹약
이회광·송병준·이용구등 친일파
한국불교 전통망각 일제 침투 허용



◇김광식씨

1910년 10월 6일 한국불교의 원종(圓宗) 대종정 이회광(李晦光)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동종과 '조동종맹약'을 체결 실질적인 매종이 이뤄진 과정과 이에 반발한 국내 승려들의 보종(保宗)운동의 핵이 된 임제종운동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논문이 3·1절을 앞두고 발표되 주목받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광식씨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집에 발표한 '1910년대 불교계의 조동종맹약과 임제종운동'은 1910년 일제강점을 전후로 한국불교계가 당면한 매종과 보종의 첨예한 대립상황을 파헤쳤다. 김씨는 이회광이 일본에 건너가 체결한 조동종맹약을 "한국불교의 전통을 망각하고 시류에 편승하려는 일부 승려들이 자행한 매종행위"로 규정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조동종맹약의 단서는 이미 1895년 일본 승려의 건의로 이뤄진 승려도성 출입금지 해제령의 본질을 불교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즉 해제령 이후 불교계는 당시 풍미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의 논리하에 수용된 불교 발전·진화 논리는 일제의 종교적 침투에 거의 무반응 상태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906년 설립된 불교연구회와 그 산하의 명진학교등 친일색채의 단체가 결성되고 1908년 3월 6일 설립된 불교 거대 종단인 원종의 고문으로 일본 조동종의 승려 무전범지(武田範之)가 추대된 것 등이 1910년의 조동종맹약을 잉태시킨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활약했던 중심인물로 이회광 원종대종사와 친일파 이용구, 송병준 등을 꼽았다.

한편 김씨는 영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임제종운동의 핵심인물로 박한영, 한용운스님 등을 꼽고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1910년 10월 5일(음력) 무등산 증심사에서 첫번째 규탄대회가 있었으며 1911년 1월 5일에는 송광사에서 다시 규탄대회가 열렸다. 특히 송광사 대회에서는 임제종 및 그 기관인 종무원을 설립시켰는데 이후 임제종을 범어사·통도사·해인사를 3본산으로 정하는등 일본불교에 반대하는 국내 불교세력의 집결체가 됐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특히 1912년 5월 26일에는 반대운동이 중앙으로까지 진출해, 임제종중앙포교당을 건립한 것이 임제종운동의 극치였다고 김씨는 평했다.

일제의 억압이 본격화되며 1912년 6월21일 임제종 간판이 철거된 이후에도 한용운스님을 중심으로 '조선불교회' '불교동맹회' 등이 조직돼 움직인 것은 자주적인 불교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게 김씨의 결론이다.

"임제종운동은 이후 불교계의 개혁운동 및 민족운동의 정신적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욱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얼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大空月珠 編譯/크라운관 양장/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96학년도 해동불교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설립년도 : 1987년 3월 6일

1. 모집인원 : 포교과 30명, 전문강원과 10명, 연구과 10명
2. 입학자격 : 포교과—신심이 돈독한 불교신도
강원과—불교전문인(범패의식 이수 희망자)
연구과—일반대학졸업이상자, 본교졸업자
3.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증명사진 4매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학과 또는 본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처
5.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1996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6. 전형일시 (서류전형 면접)
1996년 3월 15일 오전 10시
7. 입학일시 : 합격자에 개별 통지함
8. 전공과목 강의시간

학 과	교육년한	요 일	수업시간	자 격
포 교 과	2년	목·금	오후1시~5시	법 사
연 구 과	1년	목	〃	포교사

9.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과로 문의
10. 주 소 : 충북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성마루) 257-8
11. 전 화 : 교학과 : (0441) 853-3169
원장실 : (0441) 853-3168
연락처 : (0441) 44-7357
호 출 : 015-492-3166

해동불교전문대학장 이 석 천

Ⅰ. 大學基本課程 : 초기불교부 특강 및 대승불교부 36강 강의

佛教思想講座

1. 강의일시 : 2540('96)년 3월 5일개강. 제1,3,5주 금,토강의 금 : 19 : 00—21 : 00
2. 법사 : 최봉수박사(동국대교수, 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토 : 15 : 30—17 : 30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요망 전화 237—4438/9

* 초기불교부 특강.
1. 원시불교 자료의 오대(五大)영역
2. 원시불교 교육의 방법론적 이념으로서의 점교성(漸敎性)
3. 원시불교의 오안설(五眼說)
4. 우주및 역사전개의원시불교적 동인(動因)으로서의 업(業)
5. 원시불교의 공계(空界)에 대한 일 고찰
6. 원시불교 깨달음의 구조

A. 반야(般若)부
1.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2. 중생즉불(衆生卽佛)의 도전적인 명제
3. 열반의 한계와 자성(自性)의 부정
4. 존재와 비(非), 무(無), 공(空)
5. 방법으로서의 반야(般若)
6. 목표로서의 반야바라밀다
7. 피안(彼岸)의 보리와 공성(空性)의 체득
8. 보살사지와 구경열반의 구조
9. 사지연기(四支緣起)의 우회적 선언
10. 가테(Gate) 가테 파라가테(Para Gate)

B. 법화(法華)부
11. 반야와 법화
12. 방편즉보리(方便卽菩提)의 참뜻
13. 수기(授記)의 방식과 목적
14. 회향(廻向)의 이유와 논리
15. 다보여래(多寶如來)의 출현
16. 오탁악세(五濁惡世)와 여(如)의 세계
17. 십여시(十如是)와 여의 세계
18. 여래십호(如來十號)와 여의세계
19.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의 붓다
20. 비(悲)와 대비(大悲)

C. 화엄(華嚴)부 십주경(十住經)
21. 환희지(歡喜地…十大願을 세움)
22. 이구지(離垢地…十善道를 행함)
23. 발광지(發光地…三法印을 관함)
24. 염혜지(焰慧地…三十七助道品)
25. 난승지(難勝地…四諦를 닦음)
26. 현전지(現前地…十二緣起를 관함)
27. 원행지(遠行地…十波羅蜜을 닦음)
28. 부동지(不動地…無生法忍을 얻음)
29. 선혜지(善慧地…四無碍智를 얻음)
30. 법운지(法雲地)보살과 붓다

D. 정토(淨土)부
31. 극한 사황과 범부(凡夫)의식
32. 극락정토와 왕생(往生)
33. 아미타불과 본원력(本願力)
34. 믿음과 염불(念佛)과 안식(安息)
35. 자력(自力)과 타력(他力)
36. 일불승(一佛乘)의 보살도(菩薩道)
* 총결론

Ⅱ. 大學院專攻課程 : 80화엄경 및 화엄론 40권 종합강의

華嚴經大講座

1. 강의일시 : 2540('96)년 3월 8일개강. 제2,4주 금,토강의 금 : 19 : 00—21 : 00
2. 법사 : 각성큰스님(삼일선원, 삼일불교교육원상임지도법사) 토 : 15 : 30—17 : 30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요망 전화 237—4438/9

財團法人 呑虛佛敎文化財團
附設 三一禪院·三一佛敎敎育院
〈전철3호선 약수역 ☎237—4438~9〉

"입학선물은 불서로"

조계종·교사불자회등 '권장불서' 선정

"부처님 가르침으로 뜻깊은 새 출발을"

3월 입학시즌을 맞아 출판계와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도서상품권이나 책 선물하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교보·종로·영풍문고가 '책으로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도서보급(주)이 1만원권 도서상품권 발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 선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도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 전국교사불자회(회장 박중현) 책방 여시아문과 불서총판 운주사를 중심으로 '입학선물은 불서로' 운동을 조용히 펼치고 있다.

여시아문과 운주사가 입학을 맞는 중·고등, 대학생을 위한 추천불서를 선정한데 이어 전국교사불자회도 1차로 청소년용 불서 15종을 선정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권장불서(가안)를 선정했다.

이들이 선정한 불서목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은 단연 불교입문서다.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해 알기쉽게 설명한 불교진흥원의 〈청소년불교성전〉과 불교교육연합회의 〈청소년불교입문〉 △사찰예절과 절의 구석구석을 재미있게 소개한 권영한의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과 김현준의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를 이해시키는 법정스님의 〈숫타니파타〉와 박경훈의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무비스님의 〈금강경강의〉 등이 그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학문탐구의 길로 들어서는 대학생을 위한 불교학 입문서로 고형곤의 〈선의 세계〉와 고익진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끼야마 사또꼬의 〈과학과 불교의 신비〉, 사이구사 미쓰요시의 〈인식론·논리학〉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백과사전형식의 입문서인 〈불교상식백과〉는 나이를 불문하고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입문서 이외에 고승들의 일화를 소설화 한 불서들도 권할만하다.

김상현의 〈역사로 읽는 원효〉와 경허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최인호의 〈길없는 길〉, 효봉스님을 모델로 한 윤청광의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 백운스님의 〈진묵대사〉 등은 쉽고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불서로 꼽힌다.

이밖에 수필형식의 기행문도 자연스런 불교이해에 도움을 준다. 고은의 〈신왕오천축국전〉과 법정스님의 〈인도기행〉,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최완수의 〈명찰순례〉 등이 대표적인 불서다.

'입학 선물 책으로 하기'는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선물 풍토의 조성과 '문학의 해'에도 어울리는 것으로 독서인구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입학선물로 권할만한 불서〉

대상	도 서 명	편·저자	출 판 사
중·고생	숫타니파타	법정	샘터
	역사로 읽는 원효	김상현	고려원
	청소년불교입문	불교교육연합회	대원정사
	코끼리의 눈물	고우익	밀알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불광
	불교상식백과	홍사성 외	불교시대사
	청소년불교성전	성전편찬위원회	불교진흥원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윤청광	언어문화
	진묵대사	백운	불광
대학생	길없는 길	최인호	샘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비사
	선의 세계	고형곤	운주사
	금강경강의	무비	불광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과학과 불교의 신비	아끼야마 사또꼬	고려원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사 미쓰요시	불교시대사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불교사 100장면	임혜봉	가람기획
	사발하는날	현진	해인사출판부

■추천=조계종포교원, 전국교사불자회, 책방 여시아문, 불서총판 운주사

한일협정 무효주장 '개정안 마련'

한일과거청산본부 "새 조인식 갖자" 국민운동 전개

일본 외상의 '독도영유권' 망언에 대한 전국민적 규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한일 양국의 호혜협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새로운 한일협정 조인이 추진되고 있다.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와 6·3동지회는 28일 오전11시 송현클럽에서 '한일협정 개정안'에 대한 요강을 발표하고 곧 개정안을 마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에 보내 새 조인식을 갖도록 국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과거 한일협정의 △청구권협정 △재일동포 지위협정 △어업협정 △문화재협정 등의 원인무효를 확인하고 침략에 대한 배상과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실행의지를 담게 된다.

독도 불상봉안 결의

민족통일불교중앙협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불교계 규탄의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독도 수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독도에 부처님을 봉안하고 2천만 불자들이 한국의 신장역할을 하도록 민족정신을 결집, 호국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결의했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 내달 4일 대각사 이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가 3월4일 종로 대각사로 이전하고 기념법회 및 공개강의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한편 포교회는 3월 19일부터 2급 레크리에이션지도자 강좌를 비롯 주부레크리에이션대학(4월), 어린이법회 지도자교육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5부장 인사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 9일 30, 40대로 신임 5부장을 임명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인사는 총무부장에 법현스님(38·원각사주지) 교무부장 재홍스님(39·보현도량 회장) 재무부장 혜일스님(44·불이성 법륜사주지) 사회부장 법성스님(42·강남 불국사) 규찰부장 법인스님(40·인천 용궁사) 등이다.

소암스님 21일 입적

태고종 덕암문도회 명예회장인 소암스님이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성북구 동소문동 봉황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2세 법랍 35세.

1925년 서울 명륜동에서 출생 60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득도한 스님의 다비식은 25일 봉행됐다.

뉴질랜드에 법당건립 추진

한국불교회 150세대 기금 5천만원 확보

뉴질랜드의 한인 불자들 150여세대가 모여 법당건립 추진불사를 벌여 뉴질랜드에 한국불교의 싹을 틔우고 있다.

종교법인 뉴질랜드한국불교인회(회장 황경호·사업)는 지난 19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임시 회관에서 설명절 기념법회와 함께 법당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등 회 지도법사 정묵·지윤스님(조계종 비구니)을 비롯해 교민불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진위원회 출범의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 상임포교사 리선행법사의 특별법문이 있었으며, 법당마련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했다.

동 회는 현재 법당건립을 위해 회장 황경호씨를 추진위원장으로 5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동 회는 94년 150세대가 모여 결성, 95년 10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종교법인을 득하고 매주 토요일 정기법회 매주 수요일 참석법회를 열고있다. 지난 95년에는 광덕스님(불광사 회주)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식도 가졌다. 또한 라디오 교민방송(810AM)을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30분간 시간을 대여해 불교방송을 내보내는등 열성적인 신행과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암스님 서화도예전

美보림사 천불전 기금마련

워싱톤 보림사 천불전 건립불사기금 조성을 위한 경암스님 선서화도예전이 오는 3월 3일까지 제주도 제주모자원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10대 선사시 10곡병 반야심경 8곡병 달마도 등 병풍 11점과 사군자 도자기 20점 액자 30점 등 총 71점이 선보이고 있다. 중광스님과 일장스님이 각각 찬조작품을 내었다.

한마음선원 성금 전달

소년소녀가장 115명에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안양시내 소년소녀가장 1백15명에게 성금 3천4백38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한마음선원이 지난달 21일 안양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소년소녀가장돕기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에서 모아진 것이다.

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검토

중앙승가대학 대책위원회(위원장 성문)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부지협소, 소음공해심각 등 교육적 환경의 부적절을 이유로 들어 김포부지는 승가교육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는데 결론을 내렸다.



무기수불자 양동수씨 출소

사형수 아들을 위한 모정불심(母情佛心)으로 감동적인 화제가 되었던 불자 무기수 양동수씨(45)가 지난 17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돼 21년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새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스님과 불자등 불교계의 간절한 탄원으로 구명운동을 폈던 삼중스님(자비사)의 마중으로 출소한 양씨는 "출가해 어머니와 삼중스님의 뜻을 좇아 재소자교화에 전념하겠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고영배 기자〉

종교편향 정부공문 '물의'

부천 원미구청 '하나님의 평안을…' 게재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발송한 공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등의 기독교 문안을 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부천탁아, 룸비니 어린이집 등 7개 시설에 발송한 업무연락과 공문을 통해 특정종교를 표현하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의 문구를 게재했다.

이에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지난달 19일 편향적 문서 작성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할 것을 부천시장 명의로 요청했다.

석왕사측은 "모든 일에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특정종교를 편향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 불교연합회와 전불교종단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소리

태고종의 세대교체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태고종이 지난 9일 발표한 총무원 5부장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30~40대의 젊은승려 중심으로 기용돼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5부장스님들의 전격인사는 최근 태고종의 젊은승려 결사단체인 보현도량(회장 재홍) 회원들이 종단발전개혁방안을 종단에 제시하면서 총무원장 혜초스님이 종단의 체질개선을 위해 젊은승려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현도량의 종단개혁방안에 따르면 총무원예산이 50%도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드러내는 재정공개와 종단대소사를 투명하게 얼론에 드러내 책임지는 자세와 신뢰받는 종무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득도강화 승려재교육실시 정규대학설립등 종단교육제도를 확립하고 21세기를 겨냥한 북한, 정보, 지방자치 연구 등을 종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변화는 도외시한 채 운영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종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단을 민주적 조직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 일부 태고종도들은 총무원장 혜초스님이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여건이 형성안돼 자중지란의 위험과 잡음도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종단이 의욕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특정 단체의 회원들이 총무원 지도부를 '독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갑자기 젊은스님체제로 변화돼 종단 중진 및 노장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종단운영을 무리없이 이끌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오래 닦여진 경륜은 발전에 원동력이다. 그러나 정체된 물은 쉽게 썩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년간 일부지도부스님들에 의해 운영돼온 태고종이 젊은 승려중심의 파격적인 세대교체와 세대간의 대화와 화합을 통한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마음 모든 것 만드는 창조자

천지의 근본이 마음이요 태양의 근본이 마음이요 인간이 일체 만법을 운영하고 행하는 것도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야말로 선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제5기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 모집

법회와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레크리에이션으로 고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방편을 찾고 계십니까? 본 회에서는 법회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여러 지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 : 불기 2540년 3월 19일 ~ 6월 16일자 (종합실습 1박 2일 포함)

강좌내용
1. 불교 교리
2. 불교레크리에이션론
3. 찬불가 (찬불가, 율동, 응용)
4. 음악 (악보 보기, 동요, 가요, 응용-싱어롱)
5. 리더쉽
6. 레크리에이션론
7. 모임의 신행
8. 프로그램의 작성
9.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리벤트)
10. 캠프
11. 오리엔티어링
12. 하이킹
13. 만들기
14. 게임
15. 춤 (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16. 지도자의 자세
17. 심리학
18. 탈출
19. 종합실습

강 사
법현스님(본회 회장), 장명문 법사(본회 연수원장), 이성훈 선생(1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선재 이벤트 대표), 정기자 선생(본회 부회장), 권양숙 선생(불교음악지도위원), 신명숙 선생(미술 지도위원, 교사), 김희선 선생(음악 지도위원), 이상종 선생(레벤트 전문가), 김재성(레크리에이션 전문위원), 박종 교수(불성 개발 연구원장) 이성주 법사(유치원장)

강의장소
대각사(지하철 3호선 종로3가 1번 출구 옆 50m)

※특 전 : 2급 지도자 자격 수여(1기 양경옥 선생의 경우 한누리 독서운동본부의 교수로 활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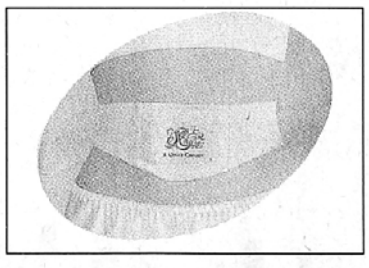
※참가비 : 200,000원

문의 및 접수 (02) 935-4967 본회 사무국
(02) 433-1507 선재 이벤트
(02) 744-4503 대각사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 법현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이천만 佛心 — 하나로 뭉쳤다

나라가 어려울때 더 활짝 피는꽃 - 이천만 연꽃

부처님이 행한사랑-카루나

카루나

감독 이일목

옥소리, 김청, 김정훈, 조재현, 최종원, 남능미

(株)일목필름 창립작품

전국 3월 대개봉

카루나 전국 예매처

서울 : 도선사(02)993-3161~4 조계사(02)732-2115 영화사(02)444-4321 진관사(02)359-8410 구룡사(02)556-5740 봉은사(02)545-1133
한마음선원(0343)72-3100 태고종총무원(02)745-2030 현대불교신문(02)722-4162 책방여시아문(02)737-0695 찻집녹수청산(02)736-3702
견지불교사(02)739-3032 관음손(02)720-9072 보련각(02)733-0333 불일서점(02)734-1249
부산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051)867-0501 범어사(051)508-4424 삼광사(051)808-7111 내원정사(051)242-0691
한마음선원(051)403-1077 관음사(051)802-6236 연화사(051)555-5337 옥천사(051)414-5387 삼우정사(051)518-6150
대자선원(051)516-6001 정암선원(051)338-3730 효심사(051)304-4422 무애정사(051)556-9560 황룡암(051)292-7733
동광동희로회랑(051)255-6544 동광동산마루(051)245-3421 금어암(051)555-6072

대구 아세아 254-7833
서울 화양 362-3143
서울 연흥 678-1014
서울 스카라 266-6333 · 6303
대전 중앙 253-5517
광주 현대 223-4285
부산 국도 245-5441
서울 힐탑 543-0012